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개막

17일(목) 유치부를 시작으로

97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17일(목)에 열리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필두로 개막된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행사의 전체 주제는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시119:105)이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의 이해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자”(유치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중등부),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이까”(청년부) 등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를 재구성하고 교육의 내

용과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교회학교에서는 여름행사를 통해 잃은 양(장기결석자) 찾거나 부서 배가운동도 병행하면서 내실을 꾀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년부의 몇몇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가 마치는 시간에 학교 주변이나 횡단 보도 주변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출석을 권유하고 있다. 중등부는 7월 28일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다음 주일 ‘내 짝꿍을 위한 큰잔치’를 마련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 복음을 전하고 수련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부서들은 기대감을 갖고 여름행사를 맞이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장기결석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열심을 내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정호 장로)에서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 교육목표인 거듭난 인간·성숙한 신자·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서의 이상을 한단계 더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온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번 여름행사의 강사와 기간, 장소 주제는 <표>와 같다.

아래와 같이 일정을 발표한 8개 부서 이외에도 소망부가 8월 중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탁아부에서는 7월 22일(화) 교사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맥추감사절이었던 지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했다.

✦ 순례자 컬럼 ✦

소유와 삶

가진 것이 없이도 의미있게 인생을 살다간 사도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인생을 산 이들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값지게 산 이들의 표본이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헤롯대왕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추구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뿐이었으니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 없고 더구나 감사와 보람은 찾을 수 없었다.

소유가 적다는 구실로 봉사할 기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인생의 성패가 그 소유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바쳐 오천 명을 먹게 한 소년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최양순 전도사	7월 17일(목)	교회당	주일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자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1일(월) ~ 22일(화), 2일간	교회당, 용산가족공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요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1일(월) ~ 22일(화), 2일간	교회당, 서울랜드(과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중등부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7월 28일(월) ~ 30일(수), 2박 3일간	평안교회기도원(화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
고등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김명현 목사	8월 11일(월) ~ 13일(수), 2박 3일간	청소년 수련의 집(홍천)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치소서
대학부	이종윤 목사, 이순환 목사, 박귀환 목사	8월 4일(월) ~ 7일(목), 3박 4일간	태백교육원(태백시))	주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자
청년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8월 14일(목) ~ 16일(토), 2박 3일간	미금선교원(미금시)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이까
사랑부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7월 24일(목)	교회당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모두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기록에서는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말로 그의 죽음을 말하고 창세기를 끝맺었습니다.

창세기의 무게를 생각해 봐도 땅 속에 관이 들어가는 말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찬란한 예언으로 끝을 맺었거나, 아니면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 창세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 역시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관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겨 달라는 요셉의 유언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예표한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며 모든 인간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히 9:27).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죽음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0, 12).

2.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2장까지 나타났

던 순수하고 무죄한 인간의 모습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

애굽에서 죽은 요셉



이종운 목사

『요셉이 일백 십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창 50:26)

는 실과를 먹으면 지혜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한 실과를 먹으면 지혜가 밝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몸과 영이 함께 죽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들은 먼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요셉은 결국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죄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롬 6:23).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와 똑같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3. 믿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

요셉은 믿음의 증거로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메고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트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훗날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생각하여 무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무덤을 지날 때마다 그의 신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요셉의 입술을 봉했지만 그는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지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 - 14)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창 50:24)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준비하며 만족스럽게 죽었습니다.

요셉의 관은 4세기 동안 애굽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관을 보관했습니다. 우리는 400년 전의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며, 역시 4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역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요셉의 신앙이 계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요셉의 유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이 남긴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무덤은 사망을 떨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메시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다음 호부터는 이종운 목사의 “여호수아서 강해”를 연재합니다.

목회단상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자리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회로 생각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만남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소망한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반갑게 서로의 손을 덥석 쥌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좋은 것이라 할 것이다.

만남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학교·직장과의 만남 등은 각각 나름대로의 큰 의미를 지

영원히 기억될 좋은 만남

민영수 목사,



닌 채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좋은 교우들과의 만남은 큰 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만남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은총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서도 매우 귀중한 만남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고 돕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용하며, 서로를 억누르며, 서로를 내세우며, 무시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실패의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좋은 만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나와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서로 인정할 때 값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과 '동질의 인격'과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나와 동질의 인격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나와 '동등한 인격'만 있을 뿐이다.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해 줄 때 나 자신도 인격으로 대접받게 된다. 이것이 좋은 만남을 이루는 원리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족한 내가 서울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요즘은 새롭고도 낯선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믿는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겸손으로서의 인격적 만남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만남들이 '영원히 기억될 좋은 만남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서울교회에 부임한 지 1개월 남짓. 그동안 흥해작전이 끝나고 부임인사를 겸한 대심방도 마무리하고 농촌전도단 준비를 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보람과 즐거움이 있었으며 살아있는 교회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을 걸은 목회생활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슴 아프지만 내게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얼굴이 있습니다.

약 7년 전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에 시각장애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는 인내

내가 만남을 귀히 여기는 이유



김정현 목사

심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날 집회 후 저를 찾아와 부득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천주교성당에 가면 장애자들이 생활할 넓은 방을 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어 경제적 사정상 떠나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달리 불잡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난 후에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천주교에서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해택을 주지 않아 교회로 돌아왔다는 그는 천주교에서

가르친 대로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음주의 습관이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교회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나는 그를 달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주교는 거짓말만 한다는 그의 푸념을 들어주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예 몇 주 동안 새벽 한두시 경이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내었고 나가면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저를 가족들은 걱정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집으로 낮에 찾아갔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를 대하며 그는 부끄러워했고 잘못된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의 일들을 통해 잘못된 만남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또다른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후로 저는 청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생의 큰 전환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찬양대의 찬양을 합치면 백과사전 두께보다 더 두꺼우리라 생각된다. 그 중에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열 손가락을 꼽을 만큼의 횟수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르는 이들은 최고의 감동으로 찬양대석에 서지만 회중의 입장에서는 매번그만큼 감격적이지 못함을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다.

순례지에서

찬양은 영원하리

김광신 장로(장년부 부장)

찬양은 듣는 이의 입장이 있고 부르는 이의 자세가 있으며 특히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뜻이 있기에 확실한 표현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맥추감사절 1부 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은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닿게 한 찬양이었다. 매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사랑과 같은 내 가슴에 충격과 감사였고 오아시스였다.

주님이 계신 곳은 평화의 동산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한다. 가고 싶은 간절함을 막을 수 없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정지되고 하나님과 어린양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에 서의 삶을 끝내고 날마다 평화가 깃드는 동산에 머물고 싶은 것이다.

찬양을 들으며 계속 밀려오는 천국에로의 소망은 나의 심령을 가난하고 소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아름다운 감사절이 되었다.

젊은 찬양대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생기 넘치는 찬양의 입술이 있는 한 행복은 끝나지 않는다. 불행은 행복을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은 빛을 피해 도망하리라.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주일마다 성전을 메아리칠 때 그곳이 곧 주님이 계신 평화의 동산이 아니겠는가.

지휘자 만세, 반주자 만세, 찬양대원 만세... 하나님 만만세!



이슬람을 찾는 선교자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

(Good Samaritan Friends)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중앙아시아선교를 위해 지난 해 연말에 파송된 박종상선교사를 격려하고 김치세미나에 참여하였던 파키스탄 목회자를 독려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선교활동을 확인하기고 하고 오는 7월28일 농어촌전도단이 전북지역에 파송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해외선교여행단도 파송한다. ...■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Good Samaritan Friends)”은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교회와 협력하고 모슬렘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펴는 단체. 참된 이웃으로 자비를 베풀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선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사의 훈련과 후원,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업, 현지 선교자료 수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이슬람권에 형제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현재 파키스탄에 설립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의 의료선교사역도 지원하고 있다.

이 선교회의 창립총회는 지난 95년 5월에 개최됐다. 그러나 그 태동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89년 이종운 목사와 선교단체(CCC : 대표 김준곤 목사)가 협력선교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슬람권에 의료선교팀을 파송했던 것이 그 시초.

당시 의료선교팀은 카라치 근교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설립했다. 이때 인력의 선발·훈련은 전문선교단체, 제정은 교회가 후원하는 형태의 이른바 협력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외향선교회, SIM., 인터서브, OM국제선교부 등 선교단체들도 협력선교의 장에 뛰어들어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이슬람권 선교사역이 추진돼 왔다.

파키스탄에 첫 한인 선교사가 파송된 지는 40년이 다되어 가지만 모슬렘권의 선교가 워낙 어려운데다가 선교활동의 구심점이 없어 헌신과 수고에 비해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은 한인 선교사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후원하며 현지 교회와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파키스탄 선교사들의 활동을 홍보하며 그들의 평생 선교사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선교회로서, 파키스탄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 선교활동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간에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에 이슬람권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선교회는 1995년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지도자들을 초청해 개최했던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의 국가별 선교전략 등에 참가하여 실제적인 선교 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이 선교회는 이종운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부이사장은 윤남중 목사와 전재욱 교수, 총무는 정인수 목사가 수고하고 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에 앞서 가지는

내 짝꿍을 위한 큰 잔치

초대의 글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혼자 예배만 드리고 훌쩍 가버리는 친구에게 다가가 봅시다.

이 무더운 여름 아침,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기쁜 찬양으로, 깊은 대화로, 열린 삶으로 함께 표현해 봅시다.

귀한 나눔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하며 두 팔 벌려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중등부 부장 홍정호 장로

내 짝꿍에게

중간고사, 쪽지시험, 학기말고사...

버거운 학교생활만큼이나 우리에게서는 하고픈 말도 많고 생각거리도 일거리도 많다. 후후... 너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오늘, 내 마음을 열고 내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바로 너를 위하여 이 잔치를 준비했어. 세상의 요란함과 화려함은 없지만 내면으로 가득차는 기쁨과 즐거움, 더불어 깊이있는 교제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확신한다.

중등부 회장 노재균

때 / 7월 20일(주일) 오전 9 ~ 11시

곳 / 중등부 예배실(403호)

주요프로그램 / 예배, 식사, 찬양과 레크레이션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영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각 부서 여름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